

웹툰 원작 OTT 드라마 <마스크걸>의

캐릭터 각색 전략 연구

- 살인하는 여성 캐릭터 모미, 춘애, 경자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진성현**·양윤희***

1. 들어가는 말
2.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 2-1. 웹툰과 OTT 드라마 매체의 특성
 - 2-2. 웹툰 원작 드라마의 캐릭터 각색 동향
 - 2-3. 웹툰 <마스크걸>과 살인하는 여성 서사
3. 웹툰과 OTT 드라마 <마스크걸> 속 캐릭터 비교분석
 - 3-1. 엽기살인마에서 피해자로 주인공 김모미
 - 3-2. 라이벌에서 동지로 서브 캐릭터 김춘애
 - 3-3. 강력하고 거대해진 안타고니스트 김경자
4. 캐릭터 각색에 따른 웹툰과 OTT 드라마 <마스크걸>의 변화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인기 웹툰 <마스크걸>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로 재탄생했다. 약 130화에 걸쳐 전개되었던 이야기가 7화 분량의 'OTT 드라마'로 매체 전환되며 캐릭터에 변화가 생겼다. 이는 웹툰이 영화·드라마로 제작되는 경

*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BK21 FOUR 사업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주저자,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우 각색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툰 〈마스크걸〉이 OTT 드라마 〈마스크걸〉로 제작되기 위해 취한 캐릭터 각색 전략을 분석한다.

웹툰은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감정적인 몰입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해석 및 소비를 지향한다. OTT 드라마는 제작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선행연구들은 원작의 설정과 일치하면서도 시청자가 쉽게 몰입할 수 있는 캐릭터 각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웹툰 〈마스크걸〉 속 주인공 모미, 안타고니스트 경자, 두 사람의 사이를 잇는 서브 캐릭터 춘애는 대중성도, 몰입력도 낮은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살인하는 여성 캐릭터로 그려지는데, 그녀들의 살인에는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인공 모미의 경우 그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저지르는 살인과 범죄들은 순화나 미화되지 않고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경자는 비정상적인 인물들 사이 가장 비정상적인 인물로 등장하며 긴장감을 더하고, 모미와 춘애의 신경전은 비슷한 아픔을 가졌지만 견제와 질투를 택한 빌런들의 싸움으로 그려진다.

OTT 드라마 〈마스크걸〉은 이들의 기본 설정과 살인하는 여성 캐릭터라는 점은 유지하되, 각색을 통해 공감과 몰입의 깊이를 넓혔다. 시청자들은 원작보다 쉽게 캐릭터들의 서사를 따라갈 수 있으며 모미를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졌다. 그 과정에서 살인 사건의 역할 및 작품의 메시지가 변모되었지만, 웹툰을 OTT 드라마라는 매체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보인다.

(주제어: 마스크걸, 캐릭터, 각색, 웹툰, OTT 드라마)

1. 들어가는 말

웹툰은 영화·드라마의 원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65개의 웹툰이 영상화되었고, 2021년부터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네이버웹툰은 2022년에 25편, 2023년에 29편, 2024년에는 30편 이상의 웹툰이 영상화되었다. 카카오웹툰은 2021년부터 매년 50여 건의 영상화 판권을 판매하고 있다.¹⁾ 웹툰 원작 작품의 경우 영상화 소식만으로도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검증된 소재인만큼 투자받기가 용이하다는 점, 웹툰의 팬층을 시청자로 유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웹툰이 영상화되고 각색이 이루어지며 서사 및 캐릭터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는 각 매체의 특성에 기인한다.²⁾ 하지만 지나친 변화는 오히려 기존 팬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드라마 <낮에 뜨는 달>(2023)은 사극과 현대극을 오간다는 웹툰의 세계관 설정은 유지했으나, 남녀주인공의 나이와 직업에서 파격적인 각색을 시도해 원작 팬들의 아쉬움 속에서 종영했다.³⁾ 천만관객이라는 기록을 세운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2017) 역시 개봉 전 주요 캐릭터의 삭제 및 각색 소식으로 기존 팬층의 우려를 샀다.⁴⁾ 이를

1) 정진영, <일본, 대만, 홍콩도 K웹툰 영상화가 대세...“확장성 더 커질 것”>, 『국민일보』, 2024.03.0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09542022>. (검색일: 2024.11.24.)

2) 김진철, 「웹툰의 매체 전환에 따른 캐릭터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 -<신과 함께-저승편>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62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1, 161쪽.

3) 오명연, <원작과는 다른 재해석 '낮에 뜨는 달'... 1.9%로 종영>, 『연합뉴스』, 2023.12.15.,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44900005?input=1195m>. (검색일: 2024.11.24.)

4) 김영록, <'신과 함께' 갑론을박... '진기한 없는 것 실화?' 'CG로 끝나는 영화'>, 『국제신문』, 2017.12.18.,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218.99099007988>. (검색일: 2024.11.24.)

통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원작 설정에 위배되지 않는 캐릭터를 유지하는 것이 각색의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네이버웹툰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30회 연재된 <마스크걸>은 인터넷 방송을 하던 BJ가 일련의 사건들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주인공 김모미는 '끝내주게 못생기고 끝내주게 몸매 좋은 여자'로, 그녀가 저지르는 범죄들은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에서 사랑받고 싶었지만 실패한 한 인물의 서사를 형성한다. <마스크걸>의 장르와 서사를 이끌고 가는 것은 모미의 '살인'이라는 기폭제적인 사건이다. 모미가 행한 최초의 살인은 그녀를 범죄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며 또 다른 사건을 야기한다. 이를 통해 캐릭터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개성 강한 악인 서사를 부여받았다.

OTT 드라마 <마스크걸>은 웹툰에 기반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각색을 통해 주요 캐릭터들 그리고 살인 사건의 역할 및 의미가 변모되었다. 그 결과 OTT 드라마는 공감하고 몰입하기 쉬운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두 매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각색한 결과라 보인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⁵⁾

이에 본고는 웹툰 <마스크걸>이 OTT 드라마로 제작되며 취한 캐릭터 각색 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을 통해 웹툰과 OTT 드라마의 특성을 정리한다. 두 매체의 유사점, 각색 시 유념해야 하는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웹툰 원작 드라마의 캐릭터 각색 동향 및 살인하는 여성 서사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웹툰과 OTT 드라마에서 살인을 저지른 여성 모미, 춘애, 경자를 중심으로 캐릭터를 비

5) 웹툰 원작 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캐릭터를 증점적'으로 연구한 것은 대체로 TV 드라마에 머물러 있다. 또한,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교분석한다. 4장은 3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웹툰에서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 <마스크걸>의 변화를 해석하는 장이다. 이를 통해 매체 전환 시 수반되는 캐릭터 각색을 이해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2. 선행 연구 및 문헌 고찰

2-1. 웹툰과 OTT 드라마 매체의 특성

웹툰의 영상화는 미디어 스토리텔링 분야의 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OTT 플랫폼이 웹툰 원작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매체 간의 유사점과 매체 전환 시 고려해야 하는 차이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웹툰(webtoon)’은 말 그대로 웹(web)을 통해 유통되는 만화(cartoon)다. 페이지를 넘기는 출판 만화와 달리 연속적인 프레임 안에서 짧은 호흡으로 에피소드를 완성하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사가 구성된다. 독자들은 스크롤을 통해 자유롭게 패스트포워드(fast forward)와 리와인드(rewind)를 수행해 주체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⁶⁾ 나이·성별 등 세분화된 타깃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수위에 대한 제재도 여타 매체에 비해 낮은 편이다.

웹툰의 이러한 특성은 OTT 드라마와 유사한 점이 많다. 텔레비전이라는 기기를 통해 주어진 편성표대로 시청해야 했던 TV 드라마와 달리 OTT 드라마는 구독자들에게 주체적인 시청환경을 제공한다. 시청을 원하는 장

6) 박미영, 「웹툰과 OTT의 포스트시네마적 정동」, 『영화연구』 제99호, 한국영화학회, 2024, 175쪽.

소, 시간, 작품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물론 패스트포워드와 리와인드 역시 가능하다. TV 드라마는 ‘공공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상적 주제와 소재를 다루어야 하며 회차와 러닝타임이 정해져 있지만, OTT 드라마는 이러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장면도 여과 없이 등장한다.⁷⁾

이외에도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를 통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 연재형 서사의 구조적인 근사성, 몰아보기라는 작품 감상 방법 등에서 두 매체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OTT 플랫폼이 웹툰 원작 드라마를 계속 제작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⁸⁾ 하지만 두 매체는 엄연히 다른 분야로, 매체 전환 시에는 반드시 각색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들은 이때 고려해야 할 차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웹툰은 작가 개인 중심의 환경에서 제작된다. 개별 칸과 세로 스크롤 속에서 비선형적이며 유연한 서사 구조를 띤다. 서사 전달 방식에서는 색채 및 여백을 활용한 상징적인 표현을 다수 찾아볼 수 있고,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감정적인 몰입을 유도한다. 댓글을 통해 양방향적 소통이 가능하며, 스토리텔링 부분에서는 독자의 자유로운 해석 및 소비를 지향한다.⁹⁾ 또한, 문자와 이미지로 이루어진 만큼 가상의 캐릭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소재도 다루기 쉬우며 이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없다.¹⁰⁾ 독자들은 작가가 풀어내는 서사를 완벽한 픽션으로 인지

7) 최수지, 「OTT 플랫폼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 -웹툰 〈살인자o난감〉과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o난감〉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24, 477-481쪽.

8) 박세현·임종수, 「OTT는 왜 웹툰 콘텐츠를 좋아할까?」,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 436-437쪽.

9) 김순정, 「매체 전환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재구성: 웹툰과 TV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비교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24, 264쪽.

10) 김수리, 「웹툰의 드라마화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 변화와 그 의미: 〈내 아이디(ID)는

하며 이야기를 받아들인다.

드라마의 경우 다수의 협력 속에서 하나의 작품이 제작된다. 제작자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사운드, 카메라 무빙, 미장센 등 시청각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징적 표현이 가능하다. 과거에 비해 소통의 창구가 많아지고는 있으나, 완성된 작품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시청자들과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감독, 작가를 포함한 제작자의 의도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스토리텔링을 선보인다.¹¹⁾ 배우의 연기로 만들어지는 만큼 시청자들은 작품이 픽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야기 속 인물들과 사건이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작품 속 강한 리얼리티는 깊은 몰입감으로 이어진다.¹²⁾

따라서 웹툰에서 OTT 드라마로 매체 전환 될 시에는 시청자들이 완전하게 몰입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현실감 있는 캐릭터 및 스토리라인이 요구된다.

2-2. 웹툰 원작 드라마의 캐릭터 각색 동향

웹툰에서 드라마로 매체 전환 시 중요한 원칙이자 목적은 ‘세계관 유지’ 및 ‘주요 인물의 캐릭터 유지’다. IP 구매는 결국 이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웹툰이라는 2차원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드라마라는 영상으로 전환하며 원작의 서사는 확장 및 소거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이야기를 늘이고 줄이는 것이 아니다. 원작에 대한 감독과 작가의 재해석을

강남미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1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9, 111쪽.

11) 김순정, 앞의 글, 264쪽.

12) 해당 특성들은 TV 드라마와 OTT 드라마가 공유하는 특성이자, 웹툰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는 부분이다.

중심으로, 각 매체의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관객의 심리를 고려한 변화다. 그 과정에서 캐릭터들의 변화 역시 필연적인데, 캐릭터는 서사를 추동하며 이야기의 주제를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웹툰과 드라마의 매체 전환 속에서 캐릭터를 변화시킬 때 두드러지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냄새를 보는 소녀>를 분석한 정혜지에 따르면 TV 드라마는 트렌드에 민감한 만큼 웹툰 속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대중성’ 있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¹³⁾ <내 아이디는 강남 미인>을 분석한 김수리는 매체 전환 시 주인공 캐릭터는 기초 성향보다는 표층 양상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조연 캐릭터는 매체의 내·외적 차이에 의해 변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¹⁴⁾ 두 작품은 TV 드라마로 전환된 사례지만, 두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는 ‘대중성’과 ‘조연들의 변화’는 웹툰이 OTT 드라마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유관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이영은 <술꾼도시여자들>, <유미의 세포들>, <시맨틱 에러> 분석을 통해 웹툰에서 OTT 드라마로 전환되며 두드러지는 캐릭터의 변화를 “원작의 캐릭터 설정과 일치”, “캐릭터의 단일성과 풍부화”, “시청자를 위한 공감과 몰입감”이라고 정리한다. 각색의 첫 단계는 캐릭터의 대체 불가능 특징과 가치를 인식 및 선별하는 것이다. 이후 캐릭터들을 생동감·입체감 있게 변모시키며 대부분의 사람이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호감을 살 수 있는 인물로 그려내야 한다.¹⁵⁾

13) 정혜지, 「웹툰에서 드라마로 매체전환시 캐릭터 변화 연구 -〈냄새를 보는 소녀〉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9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5, 87쪽.

14) 김수리, 앞의 글, 127-128쪽.

15) 이영, 「웹툰 기반 웹드라마의 캐릭터 연구 : <술꾼도시여자들>, <유미의 세포들>, <시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커뮤니케이션학과 석사학위

최수지는 <살인자o난감>을 통해 여러 인물과 메시지 변화에 주목했다. 주인공의 갈등은 “정의에 대한 의문”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모되며 원작의 메시지가 퇴색되었다. 조연들은 선과 악이 모두 드러났던 모순적인 캐릭터성이 약화되며 ‘악의 평범성’이라는 주제의식이 희미해졌다. 하지만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본디 서사가 약했던 인물들의 보강을 통해 사건과 인물의 갈등을 고조시켰음을 밝혔다.¹⁶⁾

선행 연구는 웹툰이 TV·OTT 드라마라는 매체로 전환될 시 주인공의 변모는 주제의식의 변화와 연결되며, 시청자들이 호감을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인물로 그려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중성’은 조연들 역시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입체화 및 서사의 보강을 통해 캐릭터성을 확장시키면서도 트렌드를 담은 받아들이기 쉬운 인물로 변모해야 한다.

2-3. 웹툰 <마스크걸>과 살인하는 여성 서사

웹툰 <마스크걸>은 여성들의 이야기다. 원작 작가 매미와 희세는 2부를 마무리하며 ‘<마스크걸>의 주요연들이 모두 여자인 만큼 여성들의 갈등이 주된 서사이며 계속해서 나쁜 여자들을 그리고 싶다’는 점을 밝혔다.¹⁷⁾ 작품 속 여성들은 살인하는 캐릭터로 그려진다.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 ‘살인’은 악(惡)으로 치부되지만, 문학을 포함한 예술 작품에서는 저항, 환상 그리고 미학의 서사가 된다.¹⁸⁾ 예술 작품 속 살인은 ‘동기’ 다시 말해 ‘욕망’을 동반하고 이는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는

논문, 2023, 75-80쪽.

16) 최수지, 앞의 글, 487-491쪽.

17) 매미·희세, <마스크걸>, 네이버웹툰, 2015-2018, 2부 후기.

18) 조영란, 「근대 문학에 재현된 ‘여성-살인’의 서사-김동인, 염상섭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제76집, 우리문화회, 2022, 314쪽.

동력인 것이다.

살인하는 여성에 대한 서사는 고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살인은 대체로 '질투'와 '복수'에 그 목적을 둔다. 그리스 로마 신화속 메데이아는 남편 이아손에 대한 복수로 자신의 자녀들과 이아손의 새 신부를 살해했다. 한국의 고전소설 <장화홍련>에서는 두 자매가 새엄마 허 씨의 질투 속에서 모함당하고 목숨을 잃는다.¹⁹⁾

현대의 여러 미디어 매체물에서는 무자비한 살인의 주체를 남성으로, 피해자를 여성으로 그려내는 경향이 짙다. 대표적으로 영화 <살인의 추억>(2003)에서는 연쇄살인마를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살인자 남성과 피해자 여성의 구도를 그려내었고, <추격자>(2008)도 남성 살인마에 의해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들이 살인을 벌이는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살인에서 유희를 느끼는 사이코패스' 정도로 표현되는데 실제 범인을 모티브로 제작한 '안타고니스트'이기 때문이다.

<오로라 공주>(2005), <친절한 금자씨>(2005),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2010), <돈 크라이 마미>(2012) 등 살인하는 여성을 앞세운 작품들도 계속해서 제작되고는 있으나, 이들은 고전들이 그러했듯 '복수'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살인은 각기 자녀를 잃은 아픔, 혹은 남편을 비롯해 자신을 옥죄던 남성으로부터의 해방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살인자가 되기 전 이들의 세계는 폭력적인 남성에게 의해 무너졌음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극의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는 여성 살인자에 대한 '공감'과 '몰입감' 그리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설정이다. '자녀를 잃은 아픔',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공감 및 이해 가능한 목표를 통해 살인이라는

19) Cheng Qingzi, 「한국 복수 스릴러 영화 속 여성 복수에 대한 연구 -2000년 이후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1쪽.

악행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서사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욕망을 복수 코드로 전복시키며,²⁰⁾ ‘개인 대(對)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 대한 저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²¹⁾

웹툰 <마스크걸>은 피카레스크 장르 속에서 악한 캐릭터들을 앞세운다. 모미가 행하는 최초의 살인은 위에서 다룬 살인하는 여성들과 달리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당성도, 공감도 얻기 힘들다. 이어지는 우발적인 살인 속에서 ‘외모지상주의의 피해자 악인 김모미’가 탄생했다. 또 다른 주요 캐릭터 경자의 살인에는 ‘복수’라는 명확한 목적이 존재하지만, 그녀 역시 공감과 몰입이 쉽지 않은 악인으로 그려진다. 주요 캐릭터에 대한 공감과 몰입의 부재는 웹툰 <마스크걸>이 OTT 드라마라는 영상 매체로 전환되며 각색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3. 웹툰과 OTT 드라마 <마스크걸> 속 캐릭터 비교분석

3-1. 엽기살인마에서 피해자로 주인공 김모미

<마스크걸>의 주인공 모미는 ‘끝내주게 못생기고 끝내주게 몸매 좋은 여자’다.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꿈은 못생긴 외모 때문에 접어야 했다. 낮에는 같은 부서의 박기훈 부장을 좋아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밤이 되면 마스크를 쓰고 컴퓨터 카메라 앞에 앉아 몸매를 부각하는 성인 방송 BJ로 변신한다. 마스크를 쓰는 순간, 그녀는 못생긴 김모미가 아닌 묘령의 여

20) 진성희, 「살부, 복수 그리고 여성 서사 - 영화 <산이 울다>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읽기」,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4호, 한국중국어문화학회, 2022, 288쪽.

21) 김지아, 「복수하는 여성들 - 영화 <친절한 금자씨>, <Stoker>, 그리고 <아가씨>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504쪽.

인이 되어 화면 너머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비록 그것이 허울뿐인 껍데기라 하더라도 애정에 갈증을 느끼는 모미의 욕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

OTT 드라마는 웹툰과 기본 설정이 동일한 주인공 그리고 유사한 사건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녀를 그려내는 시각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웹툰 속 모미는 ‘의심할 여지없는 악인’이다. 기훈을 애정하는 마음이 좌절당하자 그에게 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추락시켰으며, 팬을 빙자해 접근한 핸섬스님의 ‘못생겼다’는 말 한마디에 그를 우발적으로 살해 및 시체를 유기했다. 성형수술을 받은 모미는 자신에게 비뚤어진 감정을 가진 오남 역시 살해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 유희주점에 나가며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춘애를 쫓아내고 영화감독 신주, 스폰서 무빈을 만나며 미(美)와 연예인으로서의 성공에 집착하는데, 이들은 모미에게 있어 자신의 본모습을 가려줄 또 다른 마스크이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일 뿐이다. 하지만 성형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속되는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수감된다. 이후 자신의 딸 미모가 위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탈옥하지만, 경찰에 쫓기다 사라지며 딸을 구하는 데 실패한다. 이후 용서받지 못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모미는 딸에게 초라한 뒷모습만 보이며 사라지는 엔딩을 맞이했다.

마냥 동정하거나 공감할 수 없던 웹툰 속 모미와 달리 드라마 속 모미는 ‘불운한 피해자’로 그려진다. 모미가 추행범 누명을 씌우는 장면은 기훈이 회사를 떠나는 설정으로 바뀌며 생략되었다. 핸섬스님을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장면은 몸싸움을 하던 도중 핸섬스님이 대리석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으로 대체되었고, 그의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은 모미에서 오남으로 변경되었다. 극 중에서 모미가 실질적으로 살인한 캐릭터는 오남과 부용인데 두 사람은 모미와 춘애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던 중 살해당하는 것으

로 그려져 행위의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모미의 허영심을 보여주며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메시지를 던졌던 신주와 무빈 캐릭터는 완전히 삭제되었고, 춘애와의 갈등은 워맨스(womance)로 대체되었다. 모미의 엔딩이 바뀐 것 역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변화다. 미모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탈옥한 모미는 충구를 들이대는 경자로부터 딸을 구해내는 데 성공한다.

웹툰과 OTT 드라마 속 모미가 겪는 사건들은 유사하지만 그녀의 죄는 순화되며 피해자적인 면모가 강해졌다. 이를 통해 모미의 비도덕적이면서도 복잡한 캐릭터성이 단순화되었으며, 시청자들은 모미를 따라가기 훨씬 쉬워졌다. 모미의 각색 전략은 ‘순화’와 ‘호감’이다.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에서 사랑받고 싶었지만, 처절히 실패한 못생긴 김모미’라는 개성 넘치던 악인 서사가 열린 대신 ‘원치 않게 가해자가 된 피해자 김모미’라는 보다 대중적인 캐릭터의 서사가 펼쳐졌다. 신주와 무빈의 삭제는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숨지 않고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모미의 행적 및 성형 부작용에 피소드의 생략으로 이어지며 리얼리티를 더했고, 춘애를 간접적으로 살해했다는 설정의 소거는 모미에 대한 호감도를 높였다. 달라진 엔딩은 모미에게 영웅적인 면모를 부여했다. ‘딸을 구하기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어머니’ 모습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가해자와 피해자의 미묘한 경계에서 있던 모미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든다.

주인공의 각색은 다른 인물의 변화로 이어진다. 가장 영향을 받으며 변모한 인물은 안타고니스트인 경자 그리고 서브 캐릭터 춘애다. 모미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모한 만큼 기존의 모미가 가지고 있었던 악인 서사는 경자에게 넘어갔으며, 춘애는 모미의 피해자 면모와 호감을 증폭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원작의 기본적인 설정은 유지하면서도 분명하게 달라진 이들의 변화는 웹툰과의 연결고리이면서도 OTT 드라마라는 매체

의 특성을 관통한다.

3-2. 라이벌에서 동지로 서브 캐릭터 김춘애

서브 캐릭터로 등장하는 춘애는 모미와 경자를 논하며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학창 시절 못생긴 외모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으며, 연예계에 데뷔한 동창 부용을 짝사랑했지만 진심을 외면당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용의 불량한 과거를 인터넷에 밝혀 그를 강제은퇴시켰다. 성형 수술을 통해 사회가 말하는 미(美)의 기준에 가까워진 춘애는 부용과 동거하며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중 모미를 만난다. 이후 마스크걸을 쫓는 오남의 엄마 경자와 모미를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모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인물’이라는 기본 설정은 동일하나, 웹툰과 OTT 드라마가 춘애라는 인물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웹툰 속 춘애는 모미의 라이벌이다. 두 사람은 공감과 연대가 아닌 질투와 견제를 택한다.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신용을 잃어가던 춘애는 자신과 똑같은 외모의 신입 모미와 사사건건 부딪힌다. 결국 모미의 계략으로 이름도 빼앗기고, 도둑 누명을 쓴 채 가게에서 쫓겨난다. 춘애는 자신을 마스크걸로 오인한 경자에게 모미의 과거와 진실을 듣게 되고, 경자의 편에 선다. 하지만 성형중독으로 얼굴이 무너져 내린 채 임신까지 한 모미에게 알게나마 동정심을 느끼고, 자신이 죽인 부용의 시체를 함께 처리하며 동지애를 쌓는다. 결정적인 순간 경자와 모미를 사이에 두고 저울질하는데, 속셈을 간파한 모미는 춘애를 기절시키고 경자에게 춘애를 마스크걸이라 속여 넘긴다. 모미에게 있어 춘애는 자신의 본모습을 숨긴 채 연기할 수 있는 또 다른 마스크일 뿐이었다.

OTT 드라마 속 춘애는 모미의 동지다. 살아온 기억이 많은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친구로 지낸다. 모미는 그런 춘애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주며 우정을 다지는데, 이는 경자가 춘애를 모미라고 확신하는 단서가 된다. 경자가 모미를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 춘애는 자신도 모미에게 악감이 가득하다며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경자 앞에서는 모미의 흔적을 쫓는 것처럼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모미에게 경자의 존재를 알리며 도망치도록 돕는다. 함께 야반도주를 준비하던 중, 부용에게 잡힌 춘애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맞게 된다. 이를 목격한 모미가 춘애를 구하고, 힘을 합쳐 부용을 죽인다. 어느새 뒤를 바짝 쫓아온 경자 앞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마스크걸이라며 서로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데, 경자의 총에 춘애가 사망한다.

서브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 춘애의 각색 전략은 ‘대중성’과 ‘역할 변화’다. 이는 웹툰에서 경자 못지않게 비정상적이며 악한 인물로 그려지던 모미와 춘애의 호감도 및 공감대를 높여주고, 주인공과 안타고니스트라는 모미와 경자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노출이 심한 댄스 그룹으로 활동하거나, 성매매 업소까지 다니며 모미와 신경전을 벌이는 춘애의 비호감적인 설정은 드라마로 옮겨오며 삭제되었다. 대신 모미, 부용과의 서사에 집중하며, ‘모미의 조력자’적인 면모가 두드러졌다. 조력자 시선에서 비치는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미’, ‘춘애를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미’의 모습은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된 모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한다.

라이벌에서 동지로 변하며 모미가 춘애를 사칭해 벌인 일련의 악행들은 자연스럽게 소거되었는데, OTT 드라마는 그 공백에 두 사람의 워맨스를 채워 넣었다. “모미를 지켜주고 싶었다. 모미를 지켜주는 게 꼭 나를 지키는 것 같았다.”는 춘애의 나레이션은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에서 두 여자가

펼쳐나갈 애뜻한 워맨스를 축약한다. 이들의 워맨스는 공통된 상처와 공감에 기반하는데, 모미와 춘애가 힘을 합쳐 부용을 살해하는 장면은 두 여자의 상처와 우정의 깊이를 보여주며 서사를 추동한다. 이는 이후 춘애가 총을 든 경자 앞에서 자신이 마스크걸이라고 외칠 수 있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경자는 서로를 감싸는 모미와 춘애를 앞에 두고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고, 마구잡이로 쏜 총은 춘애를 향한다. 여기서 모미는 친구를 잃은 피해자로 그려지며 악인 서사가 순화되고, 경자의 잔인하고 악한 면모가 부각된다.

3-3. 강력하고 거대해진 안타고니스트 김경자

경자는 <마스크걸>의 가장 큰 빌런이자 안타고니스트다.²²⁾ 그녀는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받은 상처를 아들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며 오남에게 광적으로 집착하고 통제한다. 자신의 기대에서 한참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오남을 창피해하지만, 그가 죽은 순간 미래가 창창했던 순결한 피해

22) ‘빌런(villain)’은 말 그대로 악한 인물이다. 히어로로 그려지는 주인공과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에는 빌런을 주인공으로 앞세워 그들의 서사를 중심으로 다루는 작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조커>(2019), <크루엘라>(2021) 등이 그 예시다. (양세혁, 「조커의 역할가면으로서 아서를 통해 본 빌런의 캐릭터 아크 -영화 <조커>(2019)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24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23, 239쪽.) ‘안타고니스트(antagonist)’는 주인공과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에 놓인 반동인물이다. 반드시 악할 필요는 없지만 주인공의 반대편에서 그 어떤 사건이나 장치보다 효과적인 장애물 역할을 하며 극을 이끌어 간다. (안상혁, 「안타고니스트의 양상과 특성 연구」, 『한국영상학회논문집』 제8권 3호, 한국영상학회, 2010, 84-85쪽.) 예시로 <정년이> 속 허영서는 정년이와 경쟁관계에 놓였으면서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악하지 않은 안타고니스트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병기, <‘정년이’ 안타고니스트 허영서 캐릭터의 주체성[서병기 연예특독]>, 『헤럴드경제』, 2024.11.0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49422>. (검색일: 2024.11.24.)

자로 둔갑시켰다. 아들의 결합과 부도덕함에는 눈 감은 채 비뚤어진 모성애를 앞세워 모미를 처벌하고자 한다. 경자가 외치는 신의 이름은 허울, 잘못된 믿음 속 최면에 가깝다. 마스크걸을 죽이는 것은 신의 뜻이라 외치며 자신의 복수와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집념과 광기로 무장해 '마스크걸 살해'라는 목표에 도달한 듯 보였으나 춘애를 죽이게 된 경자는 교도소에 갇힌 모미 대신 그녀의 딸 미모를 살해해 복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웹툰과 OTT 드라마는 모두 경자를 의심할 여지없는 빌런 그리고 안타고니스트로 그려내고 있다. 그녀는 비정상적인 캐릭터들 사이에서도 가장 비정상적으로 묘사된다. '아들을 죽인 살인마에게 복수'라는 누구나 공감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복수가 응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이지도 호감적이지도 않은 오남과 경자의 캐릭터성에 있다. 또한, 모미 살해에 실패한 경자가 죄 없는 모미의 딸 미모를 복수의 타깃으로 삼은 것 역시 캐릭터에 공감하거나 몰입하기 힘든 행동으로 그려진다. 그런 경자의 각색 전략은 '평면화를 통한 완전한 안타고니스트의 탄생'이다.

웹툰은 경자가 미모와 함께 지내며 정(情)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을 그려낸다. '미모 살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친할머니처럼 여기고 따르는 미모에게 정을 준다. 미모를 밧줄로 묶고 고민하거나, 착화탄 연기 속에 가둬놓고 손을 떨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복수를 마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엔딩은 괴물 같은 경자에게도 미약하게나마 인간적인 면모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자에게 미모란 원수의 딸이면서도, 자신이 오남에게 주지 못한 정을 뒤늦게나마 베풀 수 있는 존재였다.

OTT 드라마는 경자를 더욱 강력하고 거대한 안타고니스트로 조명한다. 미모를 죽이는 데 거침없고 서슴없는 인물로 변모한 경자는 손녀를 구하려고 온 미모의 친할머니 영희를 칼로 찔러 죽인다. 탈옥한 모미와 마주친

경자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것이 니가 뿌린 씨앗이여”라며 피로써 복수를 끝낼 것임을 예고한다. 결국 자신의 집을 탈출한 모미 모녀를 따라 나와 미모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드라마는 경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생략한 채 복수에 미쳐있는 괴물로 그려내는데 주력했다.

또한, 웹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설정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미모와 경자의 혈연관계다. 웹툰 속 미모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인물로 나온다. 이와 달리 드라마 속 미모는 오남의 딸, 다시 말해 경자의 손녀로 설정되었다.²³⁾ 경자는 미모가 자신의 손녀라는 것을 모른 채로 목숨을 앗아가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경자의 왜곡된 모성에 서사와 비극이 더욱 깊어졌다.

자신과 아들의 허물과 과오에는 눈감은 채 춘애, 영희, 모미를 살인하고 미모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 경자는 의심할 여지없는 가장 악한 빌런이자 안타고니스트가 되었다. 경자가 악해진 만큼 시청자들은 모미와 그 주변인물들을 선역(善役) 혹은 피해자로 인식하게 된다. 아들의 복수를 위해 미모를 죽이려는 경자와 미모를 살리기 위해 탈옥한 모미의 대립 구도는 마치 악과 선의 이원론처럼 그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던 영희와 모미 그리고 미모 삼대 모녀는 사랑의 형태가 때로는 방관과 침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춘애와 모미의 워맨스 역시 경자와 얽히며 깊이감을 더했다.

23) 웹툰 속 미모는 모미와 스폰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무빈의 아이일 것으로 예측되나, 친부가 밝혀지지 않는다. OTT 드라마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리는 모미와 춘애의 씬에서 미모의 친부가 오남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OTT 드라마 〈마스크걸〉을 연출한 김용훈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미모의 친부가 오남임을 밝혔다. (하수정, 〈‘마스크걸’ 감독 “미모 아버지는 안재홍.. 염혜란에 가장 큰 비극” [인터뷰②]〉, 『OSEN』, 2023.08.23., <https://www.osen.co.kr/article/G1112168731>. (검색일: 2024.11.24.)

4. 캐릭터 각색에 따른 웹툰과 OTT 드라마 <마스크걸>의 변화

이와 같은 캐릭터 각색을 통해 OTT 드라마 <마스크걸>은 원작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했다. 캐릭터들의 변화는 그들이 행하는 살인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었고, 이는 작품의 메시지 변화로 이어졌다.

웹툰 <마스크걸> 속 살인은 캐릭터들의 콤플렉스와 맞닿아 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결국 뒤틀린 욕망의 표출이며, 악인 서사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적 사건으로 작용한다. 캐릭터들이 살인이라는 사건을 위해 쌓아온 행적 및 그 결과는 그들에게 공감하기 힘든 개성 강한 악인 서사를 부여했다.

웹툰 속 모미의 살인은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콤플렉스의 발현이다. 헨섬스님 살해 원인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직접적으로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였지만, 그 감정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혐오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이후 일어나는 사건들의 시발점이 된다.

오남 살해에는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숨기고 싶은 염원이 담겨있다. 오남은 '마스크걸'이라는 모미의 비밀을 폭로했으며 어찌면 헨섬스님 살인사건을 밝혀내는데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모미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오남을 살해하며 추한 자신의 모습을 세상으로부터 숨기고자 한다. 이는 결국 경자라는 악인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했다.

춘애의 살인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의 연장선상이다. 학창 시절 '아름다움에 재능이 있는' 부용을 짝사랑했지만 진심이 외면당하자 그를 제 손으로 망가뜨린다. 성인이 된 후 다시 만난 '아름다움 밖에 남지 않은' 부용을 여전히 소유하고 싶어 한다. 그를 사랑함과 동시에 증오하는 춘애는 폭력을 피하려다가 부용을 우발적으로 살해

했다. 이는 모미와 춘애의 연대를 불러올 것 같은 기대감을 조성했으나, 두 사람의 알팍한 유대감은 이미 영커버린 관계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경자의 살인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복수혈전이지만, 이와 함께 자랑스럽지 못했던 아들을 선한 순교자로 만드는 의식 행위다. 오남의 죽음은 오히려 그를 억울하고 고귀한 희생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경자는 콤플렉스라도 같았던 아들의 실체와 진실에는 눈 감은 채 뒤틀린 모성과 신앙심을 앞세워 마스크걸 타도를 외친다. 자신을 정의의 사도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애꿎은 춘애를 살해하고 죄 없는 미모에게 죄를 물으며 추악한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들은 개성 강한 악인으로 그려질 수는 있었지만 독자들의 호감을 얻거나 응원을 받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와 달리 OTT 드라마 속 살인은 ‘연대’의 상징이자 ‘다양한 모성애가 충돌하고 화합하는 사건’으로 그려진다. 살인과 죽음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관계성의 강화 및 변화는 캐릭터에 대한 공감력과 호감도를 높였다.

오남과 부용을 살해한 것으로 각색된 모미 그리고 춘애의 살인에는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전제된다. 모미를 강간한 오남, 춘애를 폭행한 부용의 살해는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 비뚤어진 애정으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는 두 여자의 바람이 담겨있다. 부용 살해 장면에서 모미와 춘애의 워맨스가 증폭되는데, 웹툰에서 실패한 두 인물의 협력이 OTT 드라마에서는 성공적으로 그려졌다. 이를 통해 원작에서 ‘타고난 악인’으로 그려졌던 모미와 춘애가 ‘상황이 만들어낸 악인’으로 순화되며 공감력과 몰입감을 획득했다.

춘애와 영희 그리고 모미의 목숨까지 앗아간 경자의 살인은 그녀를 더욱 큰 안타고니스트로 만들었지만, 이와 함께 희생자들의 연대감을 높이며 모성애가 충돌하고 화합하는 순간을 담아냈다. 흔히 모성애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웹툰과 OTT 드라마 <마스크걸>에서는 숭고와는 거리가 먼 다양한 형태의 모성애를 그렸는데 두 매체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웹툰 속 모성애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욕망으로 변질 가능한 것’이다. 3부의 악인으로 그려지는 모미, 은숙, 경자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모미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은숙은 장기 기증이 필요한 딸을 위해 모미를 이용하고, 모미는 딸 미모를 지키기 위해 기증을 앞두고 병원을 탈출한다. 경자는 죽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서는 몇 번이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다. 이들은 모성애로부터 기인된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데, 성취에는 실패한다. 은숙은 모미를 대신할 기증자를 다시 찾아야 했고, 모미는 딸 미모를 구하지 못하고 사라진다. 경자는 결국 모미도, 미모도 죽이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웹툰에서 ‘모성애’란 3부의 악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을 뿐, 사건을 해결하고 연대를 보여준 것은 미모, 예춘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우정이었다.²⁴⁾

이와 달리 OTT 드라마는 모성애의 정면충돌을 통해 ‘인물들의 화합과 연대’를 담았다. 또한, 웹툰과 달리 영화의 모성애를 부각했다. 아들을 위해서는 악마가 되는 것도 불사하는 거침없는 모성애의 소유자 경자, 모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미모는 제 숙명인양 키우며 침묵과 속죄 형태의 모성애를 보여준 영화, 미모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탈옥을 결심하며 숨겨진 본능 같은 모성애를 드러낸 모미는 결국 ‘미모 납치 및 구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격렬한 싸움 끝에 세 사람 다 죽음이라는 엔딩을 맞이하는데, 이들의 죽음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경자는 아들 복수라는

24) 매미·희세, 앞의 작품, 3부 후기.

목적을 이뤄냈으며, 영희와 모미 그리고 미모 삼대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된다. 미모는 죽음의 문턱에서 처음으로 본 모미에게 질문 한 번 하지 않고 자신의 엄마임을 직감한다. 부정적인 소문과 기사로만 접했던 엄마의 품을 느끼며 ‘범죄자’라는 마스크에 숨겨져 있던 모미의 진실한 모습을 알아본다.

웹툰 <마스크걸>이 개성 강한 악인들을 앞세워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던졌다면, OTT 드라마 <마스크걸>은 보다 대중적이고 순화된 인물들을 통해 외모지상주의 사회 속 다양한 인간성에 대한 탐구와 고찰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신성하게만 느껴졌던 모성애를 다양하고도 현실적인 모습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여성 캐릭터의 확장성 또한 이루어냈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웹툰에서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 <마스크걸>이 매체 전환 속에서 변형시킨 캐릭터들의 각색 전략을 살펴보았다.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공감대’의 형성이다. 주인공 모미의 경우 악행과 범행이 상당수 삭제되었고, ‘정당성’이 확보되며 공감대의 깊이가 깊어졌다. 이와 함께 죄의 경중을 낮추어 보다 순화된 캐릭터로 변모함과 동시에 살인에 명분을 만들어 시청자들이 모미를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모미의 라이벌이었던 춘애는 웹툰과 동일하게 그려지는 듯 보였지만, 동지였다는 반전을 주며 ‘호감도’를 높였다. 공통된 상처를 기반으로 펼쳐나가는 두 사람의 워맨스 역시 호감도를 높이는 장치가 되며 공감과 몰입을 이끌

어 났다. 이를 위해 ‘모미 타도’를 외치면서도 미모에게는 정을 느꼈던 경자는 ‘평면화’되었는데, 악한 인물이라는 이미지만 강하게 남긴 채 드라마의 긴장감을 높이는 안타고니스트로 활약했다. 그 과정에서 과장되게 그려지던 캐릭터들의 성품과 서사가 축약 및 삭제되며 리얼리티의 강화까지 얻을 수 있었다.

여타 웹툰 원작 작품이 그러하듯 〈마스크걸〉 역시 각색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캐릭터들의 변화로 인해 원작이 외모지상주의 사회에 건넬던 비판적인 메시지가 약화됐다. 모미의 복잡한 악인 서사가 소거되며 전형적인 주인공에 가까워졌다는 평도 피해 갈 수 없었다. 모미, 춘애, 경자 세 빌런이 펼쳐나가던 싸움 역시 평범한 선과 악의 대립처럼 그려졌으며, 모미와 춘애의 워맨스로 인해 다음 세대인 미모와 예춘이 펼치는 여성 연대 서사 메시지의 깊이와 감동이 약아졌다. 약 130화에 달하는 웹툰을 7화로 줄이며 생긴 지나친 축소 속에서 개연성에 공백이 생긴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각색은 웹툰이 OTT 드라마라는 매체로 전환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였다고 보인다.

해당 연구는 ‘살인’ 사건이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의 정체성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해 살인하는 주요 여성인물 모미, 춘애, 경자 세 인물의 각색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다른 인물들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웹툰과 OTT 드라마의 초반부를 이끌어간 남성 인물 오남은 각색 속에서 독특한 캐릭터성은 사라졌지만, 모미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관점에 따른 아름다움’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전달하였다. 〈마스크걸〉 캐릭터 각색의 후속 연구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용훈, 〈마스크걸〉, Netflix, 2023.
매미·희세, 〈마스크걸〉, 네이버웹툰, 2015-2018.

2. 논문과 단행본

- 김수리, 「웹툰의 드라마화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 변화와 그 의미 : 〈내 아이디(ID)는 강남미인〉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제15호, 건국대학교 글로벌문화전략연구소, 2019, 105-132쪽.
- 김순정, 「매체 전환을 통한 스토리텔링의 재구성: 웹툰과 TV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 비교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7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24, 257-293쪽.
- 김지아, 「복수하는 여성들 -영화 〈친절한 금자씨〉, 〈Stoker〉, 그리고 〈아가씨〉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76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2, 467-514쪽.
- 김진철, 「웹툰의 매체 전환에 따른 캐릭터 스토리텔링 양상 연구 -〈신과 함께-저승편〉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62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1, 153-182쪽.
- 박미영, 「웹툰과 OTT의 포스트시네마적 정동」, 『영화연구』 제99호, 한국영화학회, 2024, 173-195쪽.
- 박세현·임중수, 「OTT는 왜 웹툰 콘텐츠를 좋아할까?」,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한국언론정보학회, 2022, 436-437쪽.
- 안상혁, 「안타고니스트의 양상과 특성 연구」, 『한국영상학회논문집』 제8권 3호, 한국영상학회, 2010, 77-90쪽.
- 양세혁, 「조커의 억압가면으로서 아서를 통해 본 빌런의 캐릭터 아크 -영화〈조커〉(2019)를 중심으로-」, 『기초조형학연구』 제24권 6호, 기초조형학회, 2023, 237-252쪽.
- 이영, 「웹툰 기반 웹드라마의 캐릭터 연구 : 〈술꾼도시여자들〉, 〈유미의 세포들〉, 〈시

- 맨틱 에러》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정혜지, 「웹툰에서 드라마로 매체전환시 캐릭터 변화 연구 -〈냄새를 보는 소녀〉를 중심으로-」,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9집,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15, 71-90쪽.
- 조영란, 「근대 문학에 재현된 '여성-살인'의 서사 -김동인, 염상섭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文學研究』 제76집, 우리문화회, 2022, 311-344쪽.
- 진성희, 「살부, 복수 그리고 여성 서사 - 영화 <산이 울다>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읽기」,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4호, 한국중국어언어문화학회, 2022, 271-294쪽.
- 최수지, 「OTT 플랫폼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 -웹툰 <살인자o난감>과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o난감>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제2호, 대중서사학회, 2024, 465-503쪽.
- Cheng Qingzi, 「한국 복수 스릴러 영화 속 여성 복수에 대한 연구 -2000년 이후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3. 기타자료

- 김영록, <신과 함께> 갑론을박... '진기한 없는 것 실화?' 'CG로 끝나는 영화」, 『국제신문』, 2017.12.18.,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171218.99099007988>. (검색일: 2024.11.24.)
- 서병기, <'정년이' 안타고니스트 허영서 캐릭터의 주체성[서병기 연예특독]>, 『헤럴드경제』, 2024.11.07.,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849422>. (검색일: 2025.02.17.)
- 오명언, <원작과는 다른 재해석 '낮에 뜨는 달'...1.9%로 종영>, 『연합뉴스』, 2023.12.15.,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44900005?input=1195m>. (검색일: 2024.11.24.)
- 정진영, <일본, 대만, 홍콩도 K웹툰 영상화가 대세... "확장성 더 커질 것">, 『국민일보』, 2024.03.0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09542022>. (검색일: 2024.11.24.)
- 하수정, <'마스크걸' 감독 "미모 아버지는 안재홍.. 염혜란에 가장 큰 비극" [인터뷰②]>.

532 대중서사연구 제31권 1호

『OSEN』, 2023.08.23., <https://www.osen.co.kr/article/G1112168731>.
(검색일: 2024.11.24.)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 Adaptation Strategy of the OTT Drama <Mask Girl> Based on the Webtoon - Focusing on the Changes in the Murderous Female Characters Mo-mi, Chun-ae, and Kyung-ja

Jin, Sung-Hyun and Yang, Yun-Ho(Dongguk University)

The popular webtoon <Mask Girl> has been reborn as an original Netflix drama. The story, which unfolded over about 130 episodes, was converted into a 7 episode 'OTT drama', and the character changed. This is due to the phenomenon that adaptation is inevitably involved when webtoons are produced as movies or drama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 adaptation strategy taken by the webtoon <Mask Girl> to be produced as an OTT drama <Mask Girl>.

Webtoons induce emotional immersion through the imagination of readers and aim for free interpretation and consumption. OTT dramas present storytelling with a public consensus centered on the creator's intention. Amid these differences, previous studies point out that while matching the original characters, adaptations should be made with a mind that allows viewers to easily immerse themselves. The characters in the webtoon <Mask Girl>, Protagonist Mo-mi and Antagonist Kyung-ja, and Chun-ae, the sub-character connecting the two, are low in popularity and immersion. They are all depicted as murderous women,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justification for their murder.

In the case of Mo-mi, the murders and crimes she commits without justifiable reasons are not purified or glorified but are delivered to the readers as they are. Kyung-ja appears as the most abnormal character among abnormal characters, adding to the tension, and the war of nerves between Mo-mi and Chun-ae is

depicted as a battle between villains who had similar pain but chose to check and be jealous.

The OTT drama <Mask Girl> maintains their basic settings and that they are murderous women, but has expanded the depth of favorability and empathy through adaptations. Viewers can easily follow the characters' narratives than the original ones, and it has become easier to accept Mo-mi as a protagonist. In the process, the functions and message of murder have changed, but it seems to be an essential change to transform webtoons into OTT dramas.

(Keywords: Mask Girl, Character, Adaptation, Webtoon, OTT Drama)

■ 논문투고일 : 2024년 12월 27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5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8일